“실천의 20년, 다시 변화해야 할 때”

실천승가회, 20주년 기념 세미나서 ‘자아비판’

“부처님의 근본정신을 받들어 불교 내 제반 모순과 한국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여 이 땅에 정토사회를 구현시키자.”

1992년 10월 1일 창립한 실천불교전국승가회(상임대표 퇴휴, 이하 실천승가회)의 창립 취지문이다. 실천승가회는 종단 개혁과 사회 제반의 문제를 불교적 관점에서 해결하기 위해 결성된 승가 모임이다.

이들은 1994년 종단개혁의 주축인 범승가종단개혁추진회 한 축을 담당했으며, 악법 철폐와 민주수호를 위한 시국법회, 안기부법·노동법 무효를 위한 거리 서명운동 전개, 양심적 병역거부권 실현위한 불교단체 결성 등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

격동의 현대사와 함께 20년을 거친 실천승가회를 현재 대중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실천승가회는 2월 26일 자신들의 20년의 역사를 돌아보는 세미나를 조계사 안심당에서 개최했다.

대승사 주지 학담 스님은 이날 기조발제를 통해 실천승가회에게 도덕적 가치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먼저 학담 스님은 실천승가회를 “한 시대를 관통하며 한국사회에 진보적 발언을 해온 단체”라며 “이런 실천승가회의 활동이 없었더라면 후대 역사가들은 시대 요구 앞에서 승단 무엇을 했느냐는 질책을 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스님은 “실천승가회의 많은 성원들이 종단 요직에서 책임있는 일을 맡고 종회에 진출하면서 사회운동단체의 성격과 함께 종권 계파적 성격을 띄게 됐다”면서 “개혁 진영의 종권 참여 이후 사판불교가 질적으로 고양됐지만, 실천승가회는 승가단체인만큼 도덕적 가치가 더욱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종단 개혁 운동 견인차

사회 문제 해결 참여

제도권에 들어오며 퇴색

불교적 방편 찾아

운동 방향성 정립해야

이어 스님은 실천승가회에게 도덕적 가치와 더불어 사회적 요구해 부처의 가르침에 입각한 방안을 가지고 응답할 것을 주문했다.

실천불교승가회는 2월 26일 20주년 기념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통렬한 비판을 통한 변화가 실천불교승가회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학담 스님은 “실천승가회의 모임과 그 단체 활동은 역사의 요구에 한국불교 상가의 응답의 한 형태”라며 “공동의 선을 위해 연대하고 공동의 악과 모순을 치유하기 위해 모든 대중의 연대적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들도 실천승가회가 전환점을 맞았다고 의견을 내놨다. 중앙종회의원 일문 스님은 “실천승가회는 현재 기로에 섰다”며 “이제는 진보운동의 한 축이 될 것인지, 수행집단으로 오롯이 설 것인지를 정해야 한다. 무엇보다 대승불교의 가치를 어떻게 실천승가회가 구현할 것인지를 고민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정승가를 위한 대중결사 사무총장 금강 스님은 “1994년 종단 개혁 이후 실천승가회의 활동은 정치지향적인 모습이 강했다. 실천승가회의 이 같은 행보가 사실상 불교계 안의 진보적 운동의 토양을 만들어지지 못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작금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내부에서부터 기득권을 버리는 살을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 위상 제고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실천승가회는 세미나에 앞서 제17차 정기총회를 열고 2012년 사업, 결산보고와 올해 사업계획 승인 등을 결의했다.

이에 따라 실천승가회는 △티베트 민주화운동 54주년 기념식 및 희생자 추모재(3월 10일)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금 모금 △캄보디아, 미얀마 등 해외 구호 사업 △UN경제이사회 NGO 등록 준비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부석사 불상 일본행 ‘STOP’

대전지법 반환금지 가처분… 불자 1인 시위도

부석사 불상 반환 반대에 한국법원이 손을 들어준 가운데 일본정부가 반발하며 불상 반환이 외교문제로 비화됐다. 불자로 알려진 한 시민은 조계사에서 불상 반환을 반대하는 단식 정진에도 들어갔다.

대전지방법원은 2월 26일 서산 부석사의 금동관음보살좌상 일본반환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점유이전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날 가처분 결정에 대해 서산 부석사 신도회는 이날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환영하는 성명을 통해 “원 소유자인 부석사가 참여하는 범국민 조사위원회 구성을 요청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소유권 논란이 정리될 때까지 반환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나자 일본 정부가 나섰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菅義秀)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법이 규정하고 있는대로 외교 경로를 통해 한국 정부에 신속히 반환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불자로 알려진 한 시민은 조계사에서 부석사 불상의 환지본처를

주장하며 무기한 단식 정진에 들어갔다. 정진에 들어간 이는 2012년 7월 위안부 소녀상에 대한 일본인의 말뚝 테러에 항의해 일본 대사관을 차량으로 들이받았던 김창근 씨.

김 씨는 2월 26일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의 환지본처 △정부의 약탈 무노하재 66,000점 반환 △다케시마의 날 철회 등을 촉구했다. 김 씨는 “3·1절을 앞두고 이러한 일본의 작태에 참을 수 없어 나섰다”며 “일제강점기 우리 문화재를 대거 불법 반출한 일본이 최근에는 타케시마의 날 행사를 국가차원에서 진행하는 등 후안무치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씨는 박근혜 정부에도 “일본정부에 당당히 나서달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불교계 3.1절 93주년 행사 ‘다채’

올해로 94주년을 맞는 3.1절을 기념해 불교계에서도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다.

(사)독립운동가 백용성조사 기념사업회, 백용성조사 유훈실현 후원회, 백용성조사 탄생성지 죽림정사, 평화재단, 정토회는 3월 1일 전북 남원 죽림정사에서 3.1절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인명진 목사(갈릴리 교회 담임목사), 최종수 신부(전주교구 가톨릭 농민회 지도신부)가 축사하고 이응준 교무(원불교)가 백용성 조사의 시에 곡을 붙인 ‘온겨레의 노래’를 축가로 불렀다.

이와 함께 조계종 결사본부장 도법스님이 ‘3.1운동정신으로 국민통합을 만들어가는 의미를 되새기자’는 주제로 강연했다.

독립운동가 스님을 기리는 법회도 진행됐다. 의정부 광동고(교장 박병선)와 의정부불교사암연합회(회장 대흥)는 광동고 법당에서 3.1절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광동고와 사암연합회는 30년 전부터 3.1절을 맞아 독립운동가 용성, 만해 스님의 추모를 이어왔으나, 지난해부터는 운허, 태허 스님으로 확대했다.

한양대 불교학생회 동문회(회장 서쌍교)는 3월 1일 망우리 공동묘역에서 만해 스님의 묘지를 참배하고 스님을 추모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한양대 불교학생회 동문회는 1972년 창립 당시 첫 참배를 시작으로 올해까지 총 41번 째 참배를 이어오고 있다.

이날 참배에는 동문과 동문가족, 재학생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삼귀의례와 반야심경 봉독, ‘조선독립의 서’ 낭독, 참배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서쌍교 동문회장은 참배사를 통해 “독립운동을 대표는 민족지도자로, 위대한 시인으로 불교개혁을 갈망했던 선지식으로 어느 영역에서나 찬란하고 독보적이었던 만해 스님의 생애를 되새긴다”며 “정

남원 죽림정사

4대 종교 합동 기념행사

의정부 사암련

용성 스님 등 추모법회 봉행

한양대 불교학생회 동문회

만해 스님 묘소 참배

신적 좌표 없이 방황하는 이 시대 민중에게, 갈수록 의미를 퇴색해가는 불교계에 스님이 평생을 걸쳐 펼쳐보인 가르침이 더욱 절실하다”고 추모했다.

일본 위안부 할머니들의 쉼터인 나눔의 집(원장 원행)도 3.1절 기념행사를 열었다. 특히 이날 기념행사는 지난해 6월 타계한 故 김화선 할머니의 추모제도 함께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신중일 기자

“한진중공업 사태 원만 해결 환영”

조계종 노동위, 성명서 발표

조계종 노동위원회(위원장 종호)는 한진중공업 노사 양측이 故 최창서 씨의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66일만에 장례식을 치룬데 대해 환영 성명서를 발표했다.

노동위원회는 2월 25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35살의 젊은 노동자의 영혼이 이제야 편하게 잠들 수 있게 되었음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미망인을 비롯한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故 최강서 노동자 죽음의 문제는 단순 한진중공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사회의 정리해고, 비정규직을 포함한 사회 양극화 문제였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합의로 사회전반에 걸친 양극화와 노동의 문제를 뒤돌아보고 해결하여 나가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며 “이번 노사간의 합의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노동문제가 해결되는 단초가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신중일 기자

동국 108리더스 친구·후배 위한 나눔 ‘훈훈’

가정형편이 어려워 함께 봉사활동을 가지 못하는 학우들을 돕기 위한 나눔의 행렬이 훈훈한 감동을 전하고 있다.

‘동국 108리더스’ 재학생과 졸업생 160여명은 2월 22일 십시일반 모은 4000만 원을 가정형편이 어려운 후배들을 위해 써달라며 모은 기금을 동국대에 전달했다.

이번 기금은 현재 활동 중인 108리더스 학생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함께 해외봉사활동을 떠나지 못하는 친구들을 보고 ‘모두 다 같이 봉사활동을 떠나고 싶다’는 마음에서 시작됐다. 학생들 각자가 조금씩 돈을 모으면, 올해는 어렵겠지만 내년에 활동할 후배들은 모두 다 같이 해외 봉사활동을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이에 학생들은 지난 5월 학교 축제기간 동안 라오스·몽골·캄보디아 등 저개발국가로 해외봉사를 떠나기 위한 자선기금을 모으기 시작했다. 이 소식은 108리더스를 졸업한 선배들에게도 전해졌다. 따뜻한 마음에 감동한 졸업생이 동참하며 1년만에 4000만 원이 모였다.

108리더스 재학생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과 봉사 프로그램에 참여를 못하는 후배들을 위해 학교에 장학기금으로 내기로 뜻을 모았다.

해외봉사 못간 친구위해 시작

십시일반 1년 간 4000만원 모아

학교에 장학기금으로 기탁

이날 전달식에 참석한 108리더스 6기 이홍선(경제08) 회장은 “108리더스 활동을 통해 다른 곳에서 해볼 수 없는 다양한 경험과 소중한 추억을 쌓을 수 있었다”며 “108리더스는 평소 취업은 물론 사회에 진출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다양하고 유익한 교육을 많이 받는데, 그런 교육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학생들과 후배들에게 제공되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희옥 동국대 총장은 “재학생들이 후배들을 위해 이렇게 뜻을 모은 것이 무척 대견하다. 여러분의 소중한 뜻을 받아 더욱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동국108리더스는 항상 동국대의 대표 인재라는 자부심으로 앞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리더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동국108리더스는 학부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난 2007년 1기 선발을 시작으로 매 기수별 120명의 학생들이 활동한다. 2012년에는 140명이 선발됐으며 1년 동안 각종 리더십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국내 사회봉사 및 해외봉사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된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